

유학자들의 애국계몽운동, 근대학교를 세우다.

- 협동학교와 성명학교

애국계몽운동은 러일전쟁과 을사조약을 계기로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의 주권이 피탈되어 가는 시기에 대한자강회·대한협회·신민회 등 개화자강계열이 중심이 되어 언론·출판·집회·결사를 통하여 근대의식과 민족의식의 고취, 근대적 교육의 보급과 민족문화 향상을 위해 전개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민족자본을 육성하고 군대를 양성함으로써 민족의 역량을 배양하여 국권회복을 도모한 광범위한 구국 민족운동이었다.

애국계몽운동 단체들은 사립학교령·학회령 등 일제의 교육 탄압을 무릅쓰고 근대적 민족교육도 발흥시켜 독립운동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907년에서 1909년 사이에 3천여 개의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사립학교 설립은 위정척사운동을 이끌었던 유림들도 참여하였는데 경북 안동의 협동학교와 충남 청양의 성명학교가 대표적이다.

협동학교는 안동지역 최초의 근대식 중등교육 기관이다. 안동은 보수 유림의 총본산으로 불릴만큼 위정척사가 지역 여론의 대세였지만, 애국계몽운동의 영향을 받고 근대문물을 수용한 혁신 유림들이 위정척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대 교육을 통해 국권을 수호하고자 설립하였다.



협동학교는 1907년 봄에 개교한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이름을 '협동(協東)'으로 지은 이유는 1908년 9월 27일에 『황성신문』에 실린 「협동학교취지문」을 통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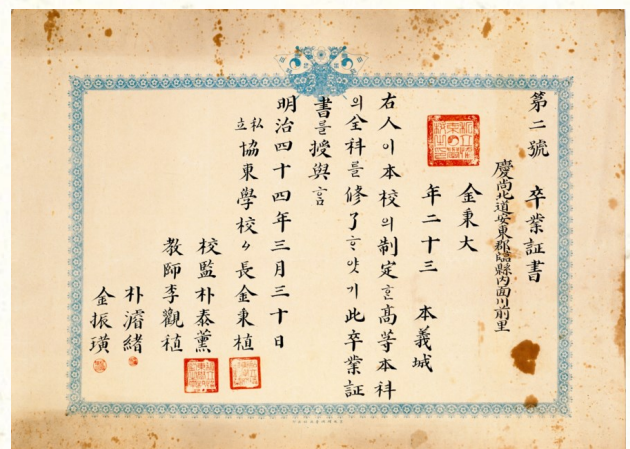
“나라의 지향은 동국(東國)이요, 향토의 지향은 안동이며,
면의 지향은 임동(臨東)이므로 ‘동(東)’을 택하고,
‘협(協)’은 안동군의 동쪽에 위치한 7개 면(面)이 힘을 합쳐 설립했다”

당시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초등교육기관이었던 반면 협동학교는 3년제 중등교육기관이었고 본과 진학을 위한 예비과도 두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의 평균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체로 20세 전후였다. 1907년 수업을 시작하여 1911년 3월에 1회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이후 1918년에 마지막 5회 졸업생까지 최소 100명 정도 졸업한 것으로 보인다.

협동학교 관련 자료는 대부분 소실되었지만, 1912년 협동학교 제2학년의 교과목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목의 종류는 모두 17개로 수산, 국어, 역사, 지리, 외국지리, 한문, 작문, 미술, 대수, 지리, 화학, 생물, 동물, 식물, 박물, 창가, 체조 등이었다.



협동학교 졸업기념



협동학교 졸업증서 (김병대, 1911.3.30)



1910년 8월 경술국치를 당하자 협동학교는 새로운 전환을 맞았다. 김대락, 류인식, 김동삼을 비롯한 협동학교의 주역들이 만주 망명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신민회의 만주지역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과 그 맥이 닿아있다. 이들은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무장투쟁을 이어갔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협동학교 학생들은 임동면 만세운동을 이끌었다. 임동면은 당시 안동에서 가장 격렬한 시위가 일어난 곳이었는데 그 중심에 바로 협동학교 학생들이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학교는 강제 폐교되었고 끝내 문을 다시 열지 못했다. 개교 이래 12년간 협동학교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은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였다.



협동학교의 교사(校舍)로 사용된 가산서당

 사적지 상세보기



안동과 더불어 주목할 곳은 충남 홍성이다. 홍성 지역은 기호학파의 적통을 계승하는 호서 유림의 중심지였다. 김복한, 이설, 임한주, 안창식·안병찬 부자, 채광묵·이세영 등 남당 한원진의 학문적 영향을 받은 홍주의 유림들은 을사조약에 맞서 홍주의병을 일으켰다.

홍성 지역에서도 1차 홍주의병이 실패로 끝난 뒤 의병에 참여했던 인물 중 일부는 애국계몽운동으로 운동의 방식을 전환하여 사립학교 설립을 통한 민족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세영과 이상린은 대한협회 홍주지회*를 설립하고 1908년 충남 청양에 성명(誠明)학교를 세웠다. 이상린이 작성한 '성명학교 취지서'를 보면 학교의 설립 목적은 제국주의 침략에서 민족을 보존하기 위함이었다.

성명학교는 교장에 이세영, 학감에 이경식과 안종현, 총무에 채규성이 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진사(進士)와 의관(議官) 등을 지낸 인물들로 유생들이었으나 임원조직 자체는 근대학교 체제를 따르고 있었다. 또한 1908년 4월 설립 직후 11명이 교사로 활동하였을 정도로 성명학교는 작은 규모가 아니었다.

* 을사조약 체결 이후 1906년 4월 대한자강회가 설립되어 전국에 지회가 조직되었다. 대한자강회는 기관지를 발행하여 교육과 실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근대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애국계몽운동의 대표적 단체였다. 1907년 11월 대한협회로 재조직되었다.



성명학교 터

 사적지 상세보기



성명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1908년 8월 측량과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항일 이념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성명학교는 측량과를 신설하면서 밝힌 설치 취지 통문에서 일제의 산림과 강산 그리고 논밭의 약탈로부터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또한 성명학교에서 교습한 <爲國歌> 가사에서도 반일적 면모가 나타난다.

... 日英美俄法德과 陸海權力 諸領袖가 / 事功으로 相上하고 富強으로 自誇하야
 弱的肉 强的食을 看作能事 이 시대에 / 自守도 하려니와 進取를 이질손야
 ... (중략) ...

어서어서 學文 배워 二千萬口 一心되야 / 愛國하난 저 精神을 日新으로 日新하야
 國權回復 獨立하고 世界盟主 되야보세 / 이아니 우리靑年 所願成就 本心이며
 이아니 우리學校 所願成就 期望인가 ...

각 지역의 유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근대학교 설립은 구국을 위한 인식 전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개항기 유림들은 위정척사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리학적 질서 수호를 위해 헌신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이 가속화되며 나라의 안위가 위급해지자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이에 대한 교육이 나라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인식을 바꾸었다. 이러한 흐름은 보수 유림의 세력이 강했던 안동과 홍성 지역의 유림에게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협동학교, 성명학교의 설립과 근대교육 실천은 혁신 유림들이 위정척사운동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인식에서 벗어나 구국의 기치를 올리기 위해 새로운 학문을 수용하고 교육을 통해 장차 조국의 미래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려 한 애국계몽운동이었다.



김동삼과 협동학교 교직원 (1907)



이세영 (1870~1941)

